

06

출처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이해자료

색 철사의 변신:
구부리고, 펴고, 끼고, 꼬고,
꼬집고, 걸고, 누르고, 감고,
잇고, 꿰고, 꽃고 ...



색 철사의 변신:

구부리고, 펴고, 끼고, 꼬고, 꼬집고, 걸고, 누르고, 감고, 잇고, 꿰고, 꽃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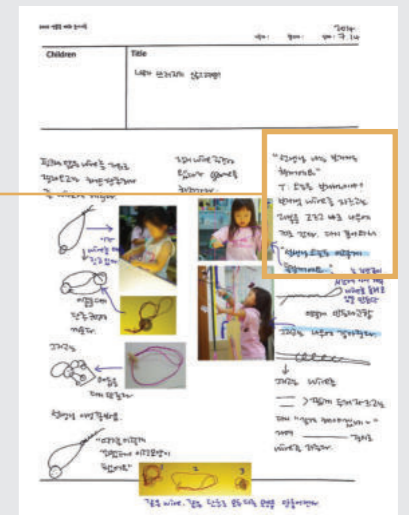


색 철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놀이 자료다.
그러나 안전의 문제로 유아에게 쉽게 내주기에는 망설여지는 자료이기도 하다.
유아에게 색 철사를 주었다.
유아는 색 철사로 어떻게 놀았을까?

교사의 놀이 의미 읽기의 시작

유아가 다양한 색과 굵기의 색 철사와 다양한 재료(단추, 나뭇가지 등)로 놀이하는 과정과 안전하게 놀이하는지를 관심을 기울여 살펴보았다.
유아의 색 철사 놀이를 사진으로 찍거나 그림으로 그렸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유아의 행동과 말을 적어 두었다.

정○○
“선생님 나는 보라색 할거예요.”
교사: 오늘은 보라색이야?
보라색 색 철사를 자르고는 리본을 고르고
바로 나무에게 가져간다.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돌릴 거예요.”
○○는 지난 놀이시간에 이어 계속 색 철사를 돌려
모양을 만든다.



놀이 흐름 따라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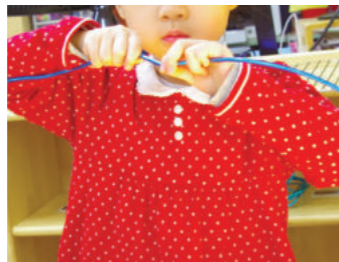
누가	언제	어디서
3세 유아	2014년 3월~4월	색 철사 놀이 공간

<교실 전경>
 3월부터 매화반에서는 사진 찍기, 그림 그리기, 괴물이 들어올 수 없는 집 만들기 등 놀이, 주변의 수를 찾아 모으기 등의 놀이가 전개되고 있다. 유아는 색 철사로 만든 것을 가지고 극 놀이를 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다가 색 철사 놀이 공간에 오기도 한다.

매화반의 색 철사 공간에는 다양한 굵기와 색의 철사와 단추, 나뭇가지 등이 있다. 유아는 색 철사 중 가장 굵은 색 철사를 먼저 선택하여 탐색하기 시작한다.



연주는 가장 굵은 색 철사에 단추를 끼워 보려고 한다. 그러나 단추 구멍보다 색 철사가 굵어서 끼워지지 않는다.



연주는 단추를 내려놓고 같은 굵기의 색 철사 하나를 더 집어 든다. 그리고 색 철사 2개를 양 손에 쥐고 이어 보려고 한다.



생각처럼 색 철사가 잘 연결되지 않자, 손에 쥐고 있던 색 철사를 타공판 구멍에 끼워 놓고 다른 곳으로 놀이하러 간다.



시울이도 연주처럼 가장 굵은 파란색 철사를 골라 든다. 그리고 손으로 철사를 이리저리 구부려 본다.



굵은 철사에 고리가 생기며 동그랗게 된다. 시울이는 동그란 모양이 된 색 철사를 교사에게 보여 주며 즐거워한다.



<총>



<아이스크림 푸는 기계>

시울이는 다른 색의 색 철사를 구부려 모양을 만들고, '총', '아이스크림 푸는 기계'라고 이름을 붙인다.

시울이는 가장 굵은 색 철사 2개를 함께 꼬아 형태를 만든다. 다음 날에도 시울이는 굵은 색 철사를 함께 끈다. 색 철사 공간 구석에서 한참 동안 다양한 모양 만드는 것에 몰두한다. 시울이는 웃으며 만든 형태를 교사에게 보여 주러 온다. 교사가 어떻게 했는지 묻자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매화반 유아는 가는 색 철사에 쉽게 손을 대지 못하였다.

굵은 색 철사로 놀이를 하는 유아 사이로 지건이가 온다. 그리고 가장 가는 색 철사 뭉치를 꺼내 손으로 짝 당긴다.



손을 살살 움직여 모양을 만든다. 지건이는 짧게 놀이하고 다른 곳으로 놀이를 하러 간다. 지건이가 가느다란 철사로 놀이를 한 다음 날부터 유아들은 다양한 굵기의 색 철사로 놀이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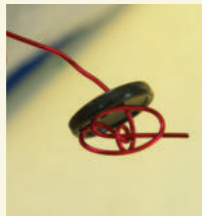
지영이, 정아, 예진이는 가장 가는 색 철사로 놀이를 시작한다. 지영이와 정아는 가장 가는 색 철사에 작은 단추를 끼운다. 그러나 색 철사의 한쪽으로 끼운 단추가 빠져 버린다.



정아는 자꾸 빠지는 단추를 계속 끼워 넣는다.



지영이는 단추를 색 철사 가운데까지만 끼우고 조심스럽게 다음 단추를 끼운다. 지영이는 단추를 다 끼운 후, 색 철사 양 끝을 손가락으로 잡고 단추가 빠지지 않게 들고 다닌다.



예진이는 색 철사의 한쪽 끝을 뭉쳐 손가락으로 꼬집듯이 잡는다. 그러자 색 철사 끝에 매듭이 생긴다. 그리고 예진이는 단추를 색 철사에 끼운다. 이 모습을 보고 지영이와 정아도 색 철사 한쪽 끝에 매듭을 만든다.

정아는 색 철사 끝에 매듭을 만든 후, 2주에 걸쳐 단추를 끼운다. 단추를 끼우던 색 철사를 벽에 걸어 두자 다른 유아가 보러 온다.



리아: 진짜 길다.

정아: 진짜 많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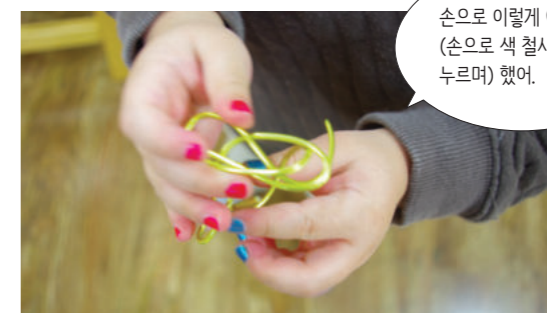
리아: 응.

정아: 많아서 이쁜 거야.

정아는 다른 친구들한테 며칠에 걸쳐 단추를 끼운 색 철사를 소개하고는 뿌듯한 미소를 짓는다.



매듭 만드는 방법을 배운 다음 날 지영이는 색 철사 양 끝을 한데 모아 손으로 꺾꽂 눌러 매듭을 만든다.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색 철사를 꺾꽂 누르며) 했어.

일주일 후 지영이는 중간 두께의 색 철사를 손으로 꺾꽂 누르며 모양을 만든다.



색 철사만으로 모양을 만들던 지영이는 다음 날 나뭇가지에 색 철사를 감아 본다. 나뭇가지에 색 철사를 감는 것이 쉽지 않다. 지영이는 나뭇가지 위에 색 철사를 올려놓고 한 바퀴 감은 후 손으로 꺾 눌러 고정한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울이와 서우도 지영이처럼 나뭇가지에 색 철사를 돌돌 감아 고정시킨다.



그 후 유아는 약 2주간 색 철사에 단추 끼우기, 색 철사 꼭꼭 눌러 모양 만들기, 나뭇가지에 색 철사 감기를 반복한다. 이제 유아는 색 철사, 단추, 나뭇가지를 모두 사용하여 더 복잡한 형태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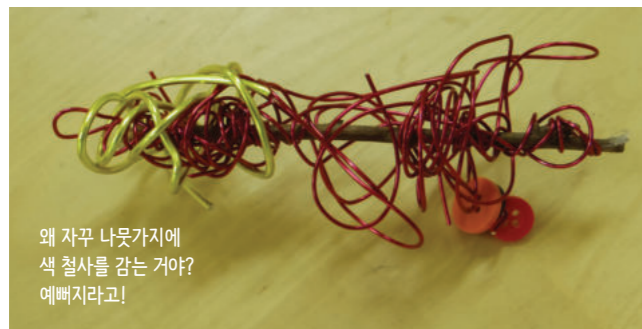
시울이는 가는 나뭇가지에 가장 얇은 색 철사를 감는다. 그리고 철사에 단추를 끼우고 다시 나뭇가지에 감아 고정시킨다.



연주는 나뭇가지에 얇고 붉은색 철사를 빠르게 획획 감는다.

그리고 색 철사의 한쪽 끝에 빨간색 단추 2개를 끼운 후 다시 나뭇가지에 고정한다.

마지막으로 두꺼운 노란색 철사를 나뭇가지 한쪽에 감는다.



왜 자꾸 나뭇가지에 색 철사를 감는 거야? 예뻐지라고!

유아는 계속해서 색 철사와 다양한 매체를 섞어 복잡한 형상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교사에게 작품을 교실 한쪽에 전시해 달라고 한다. 유아는 친구들이 만든 작품을 감상하며 놀이를 계속한다.

놀이 흐름 따라가기

누가	언제	어디서
5세 유아	2019년 5월~7월	색 철사 놀이 공간



06 _ 색 철사의 변신:
구부리고, 펴고, 끼고, 피고, 짜집고, 절고, 누르고,
감고, 잇고, 꿰고, 꽃고...

어느 날, 한 친구가 선생님을 부르며 머리에 꽃은 핀을 보여 준다. 알고 보니 유아가 머리에 꽃고 있던 리본 머리핀이 색 철사로 직접 만든 작품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여러 유아가 색 철사 놀이 공간에 모여 다양한 액세서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고은반 교실에 액세서리 공방이 만들어졌다.

공방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액세서리 만들기 놀이가 이루어진다. 남아와 여아 모두 놀이에 참여하여 다양한 형태를 구성하고 공유한다. 다양한 줄을 함께 연결하거나 복잡한 짜임새 모양을 만들며 놀이한다. 유아들은 서로의 작품을 비교하며 차이를 비교하다가 자연스럽게 액세서리 속에 숨어 있는 순서와 규칙에 주의를 기울이고 '패턴'을 발견한다. 또한 각각 다른 패턴에 따라 의미를 부여한 이름을 짓는다.



패턴에는 규칙이 숨어 있어!



주르륵 모은 패턴



중앙 패턴



하나 패턴



꽃받침 패턴



반달 패턴



지그재그 패턴



두 개 지그재그 패턴



안경 스마일 패턴



두 발 패턴

놀이 경험 이해

〈유아의 놀이 경험〉

3세인 연주는 다양한 색 철사 중에서 가장 굵은 색 철사를 집어 든다. 손을 움직여 보지만 철사를 서로 연결하는 것도, 단추를 끼우는 것도 쉽지 않다. 연주는 자신의 놀이 흔적을 타공 판에 남기고 다른 놀이로 이동한다. 연주의 흔적은 시울이의 놀이로 이어진다. 시울이는 굵은 색 철사에 힘을 가해 우연히 만들어진 모양을 보고 '총', '아이스크림 푸는 기계'를 상상한다. 오랜 시간 집중하여 색 철사로 모양을 만들던 시울이는 이번에는 굵은 철사 2개를 함께 끈다. 시울이는 감각과 몸으로 색 철사를 만나면서 구부러진다는 성질과 구부러진 모양이 고정되는 성질을 알아 가며 변형을 반복한다.

굵은 색 철사만을 가지고 놀던 유아는 지견이가 가는 철사로 놀이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굵기의 철사에 관심을 갖게 된다. 지영이, 정아, 예은이는 가장 가는 색 철사를 집어 들었고, 가는 철사에는 단추를 끼운다. 철사에 끼운 단추가 자꾸 빠지지만, 정아는 포기하지 않고 단추 끼우기를 반복한다. 지영이는 단추를 색 철사 중간까지만 끼운 후 조심스럽게 양 끝을 잡아 단추가 빠지지 않게 한다. 예은이는 색 철사 한쪽 끝을 손으로 구부려 매듭을 만든다. 유아들은 색 철사 공간에 모여 단추를 끼우며 모두 자신만의 전략을 고안해 낸다. 서로의 전략을 공유하던 정아와 지영이는 예은이처럼 색 철사의 한쪽 끝을 묶고 단추 끼우는 방법을 시도한다.

정아는 2주에 걸쳐 매일 긴 색 철사 끝에 매듭을 만들고 단추 끼우기를 반복한다. 점점 많아지는 단추를 보며 아름다움을 느낀다. 지영이는 단추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는 기능적인 면에 집중하며 매듭을 만들다가 점차 다양한 모양의 매듭을 창조하기 시작한다. 다양한 매듭을 만들던 지영이는 이제 색 철사를 나뭇가지에 감는 시도를 한다. 지영이의 시도는 여러 유아에게 옮겨 간다. 유아는 이제 색 철사와 다른 매체를 연결해서 모양을 복잡하게 변화시킨다. 색 철사가 다른 매체와 함께 점점 복잡한 형태가 되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5세 반 한 유아로부터 시작된 놀이는 다른 유아에게로 공유된다. 우연히 한 유아가 색 철사를 구부려 핀을 만들어 머리에 꽂고, 이 모습은 다른 유아에게 같은 놀이를 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그 결과 고은반 교실에는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는 공

간이 생기고, 많은 유아가 이 놀이에 **참여**한다. 유아는 다양한 액세서리를 만드는 것을 **반복**하며 만들어지는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 차이에 따라 다양한 “~ 패턴”으로 명명하며 의미를 부여한다. 직접 착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액세서리 만들기의 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즐거움**과 **성취감**을 경험한다.

이렇듯 유아는 마치 색 철사와 하나가 된 것처럼 손의 **움직임**과 **힘의 조절**로 색 철사 모양을 바꾸며 색 철사의 특성을 알아 간다. 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자신만의 탐색 방법과 같은 **개별성**을 드러내고, 서로의 놀이 경험을 **공유**하면서 배운다. 안전에 관한 우려가 있었지만, 색 철사를 오랜 기간 다룬 경험과 새로운 시도, 유아간 경험의 공유, 유아의 개별적 경험이 한데 어우러지며 놀이가 **다채롭게** 펼쳐지고 **즐거운** 배움이 일어났다.

〈교사의 놀이 이해〉

교사는 유아가 색 철사를 만지고 느끼면서 그 특성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놀이하면서 색 철사 놀이를 변형해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색 철사는 위험할 수도 있는 매체라 생각했으나, 유아 스스로 조율해 가며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사 이야기: 3세 유아에게 색 철사를 제공한 이유

색 철사는 유아 손의 힘으로 쉽게 변형되는 열린 자료라고 생각해요. 손으로 구부리고, 펴기를 반복하면서 다양한 형상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유아에게 상상의 놀이를 열어 주기도 해요. 쉽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색 철사의 특징은 어린 유아도 쉽게 놀이에 빠지도록 하는 것 같아요. 색 철사로 놀이하는 경험이 풍부해질수록 다채로운 형상물을 만들 수 있고, 유아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들은 색 철사를 통해 패턴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색 철사는 색 조합, 굵기에 따른 힘 조절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와의 만남 등을 통해 다양한 변형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교실 안에 색 철사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색 철사를 준비해 주었어요.

저는 유아가 철사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이야기했어요. “철사를 눈앞에서 휘두르면 절대 안 된다.”, “철사를 들고 움직일 때는 주변을 살펴라.” 그리고 색 철사를 사용하기 전에 철사를 자르는 방법과 함께 철사의 잘린 끝부분이 날카로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알려 주었습니다. 4개월 동안 유아는 자유롭게 놀이를 하며 색 철사를 다루는 경험을 쌓아 갔습니다. 철사를 직접 가지고 노는 것을 보면 유아들이 제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며 주의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놀이하는 4개월 동안 색 철사에 굵히거나 찍힌 유아는 없었어요.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아는 손으로 색 철사를 감고 꼬는 등 자유자재로 철사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세인데도 색 철사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조율하며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교사 지원의 특징

색 철사 공간에는 다양한 두께와 색의 철사와 함께 색 철사로 펴 수 있는 단추, 감을 수 있는 나무 막대 등을 마련해 유아가 재미있게 놀이할 수 있도록 했어요. 유아가 색 철사와 다른 자료를 사용하여 형상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는 것을 보고, 더 다양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형태의 색 철사를 벽이나 천장에 달아 전시하였을 때 유아가 아름다움을 더 잘 느끼는 것을 보고, 유아들의 작품을 벽과 천장에 전시하여 다른 유아의 놀이 결과를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